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7년 8월 31일
28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언제나 가정과 사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동시에 섬기시는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아동인신매매를 통한 살인 및 장기적출(매매)에 대한 소문(뉴스)이 돌면서 단기선교 팀들의 사역(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후, 가짜 뉴스로 확인되었지만,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골마을에서는 소문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외부인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지방 의사들 사이에서 한국인과 접촉하면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소문과 사건들이 선교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글로 대신 전합니다.

☞ 세광교회 청년부 단기사역

7월 16일부터 27일간 세광교회 청년부 단기팀 사역이 교회와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팀의 사역이 마을과 학교로 하여금 소통과 나눔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물꼬를 터주어 감사합니다. 함께 살을 맞대며, 나뉘던 교제(소통)를 통해, 마을 주민(어른)들이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교회와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교이래 처음으로 정규수업시간을 팀에게 할애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팀과 함께하는 동안,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고맙다는 학교장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학교장의 성격상 정규수업시간의 할애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을 알기에 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나눔과 소통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제 그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과제를 풀기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역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신 세광교회와 유창진 담임목사님, 해외선교위원회와 청년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교회사역

[어린이성경학교 & 청소년연합수련회] 단기팀(세광교회 청년부)의 섬김과 수고로 교회의 첫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과 학교에 소통의 물꼬를 튼 것처럼, 교회사역(어린이)에도 또 다른 새 바람을 일으켜주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은 낮설지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교회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소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팀의 섬김과 수고로 어린이들의 성경학교가 진행됐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를 지역 내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수련회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일(5박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해 교회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 4가정이 연합하여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수련회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리며, 교회에서 참가할 11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부탁 드립니다.

해바늘의 부름과 응답하는 삶!

주제 : 하나님의 부름을 응답하는 삶 (행 2:47)
 "하나님을 전파하여 또 온 백성에게 복음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God's Calling

목적 :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교사가 된다.

일정 : 2017.9.4 (월) ~ 2017.09.09 (토)

장소 : 장승포대이 캠퍼스 모스니 센터

1.은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는 모스니 센터

[대지구입 관련소식] 대지구입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몇 차례, 마을이장님과 만나 전체필지(6필지)중, 4필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전했고, 이장님도 땅 주인에게 저희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땅 주인은 전체필지에 대해 구매를 원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장님과 함께 땅 주인을 만나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학교지원사역

[한국어교실과 교복지원] 현지학교의 방학에 따라 한국어교실에도 방학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89명으로 시작해 최종 12명이 남아 마지막까지 수



업에 최선을 다해주니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11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방학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위로로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또한, 귀국했던 단기팀(세광고회 청년부)의 헌금으로 2차 교복지원사역을 위한 비용이 마련되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11월)를 맞이할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베풀고 나누는 사랑에 교장님도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전합니다.

☞ 가정의 소식 & 기타소식

[가정의 소식] 캄보디아 생활의 다리가 되어주던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흔한 일상이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번 고장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지 벌써 한 달 이상 수리 중입니다. 차량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단거리 이동수단이었던 오토바이가 장거리 이동수단이 되었는데, 생각지 못한 두 차례 사고로 오른팔 부위(손목, 팔꿈치, 어깨)를 다쳤습니다.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통증이 남아 있어 움직임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치고 나니, 건강을 지켜야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부탁 드립니다.



자녀(지아, 지훈)의 홈스쿨 과정이 어느덧 학년의 1/3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자 공부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공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교사로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내 김 선교사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구합니다.

지민이도 전보다 좋은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10월에 있을 지민이의 정기 검진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좋은 소식으로 연락 드리길 소원합니다. 지민이의 발달부분에서 아쉽게도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언젠가 붓물 터지듯 터질 지민이의 언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대지구입] 마을의 부지를 구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귀한 헌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구입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주관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사역]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소통과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청소년연합수련회와 참여할 11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언어학교] 2달반이란 기간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할 2기 모집과 교육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학교지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학교장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사랑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민이의 건강과 언어, 행동발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비자관련문제).